식량안보, 남의 일이 아니다

조 원 량
한국제분협회 전무이사

전세계 국가들이 식량안보에 위협받고 있다. 특히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기상 이변은 글로벌 식량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발생한 세계 곡물 파동은 30여 개국의 나라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옥수수와 밀의 국제가격이 요동치자 각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이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급증하여 가축 사료로 쓰이는 콩과 옥수수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곡물시장에 여파를 미치자 곡물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까지도 식량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량안보 인식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국내 식량안보가 매우 취약한 곡물 중의 하나인 밀의 경우 밀가루로 가공시 활용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식품 소비의 다양화와 간편화를 지향하여 선호도가 높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조사(2012)' 에 따르면 71.2kg인 쌀에 이어 밀이 31.4kg로 2위를 차지하여 밀이 제2의 식량이라 부를 만큼 국내 소비량이 매우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밀 자급률은 약 2% 내외에 불과하여 국내 제분업계는 불가피하게 나머지 98%를 해외로부터 밀을 수입하여

밀가루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곡물 적정 재고율을 17%로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제분업계에서는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이 잦음을 감안하여 식품의 기초 소재인 밀가루의 국내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통상 4~6개월분을 선도구매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구매방법도 다양화하여 국제공개입찰 및 선물거래(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밀 수출국으로부터 1등급 위주로 양질의 원맥을 구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제분기술을 활용해서 제면, 제빵, 제과 등의 실수요업체 및 일반소지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밀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약 20개 국가에 연간 약 6만 톤의 밀가루를 역수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몇 차례의 국제 곡물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가 더이상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정부, 정치권, 학회,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식량안보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국내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제분업계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국산 밀 자급률 제고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그 바탕 위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와 높은 생산비 등으로 인해 모든 식량을 자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내 자급률 제고와 더불어 곡물자주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곡물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에 의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한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노력 등 다양한 대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생산자와 가공 · 유통업자, 식품관련기업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현실적 대안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